

‘도쿄 심장부’에 미술관...소통 이끈 파격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해외편

(19) 도쿄 롯본기 힐스

도쿄=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낙후된 도쿄의 도심은 문화와 주거, 쇼핑이 어우러진 초고층 복합빌딩으로 되살려 낸 롯본기 힐스의 전경.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까지 착공기간만 17년이 걸린 롯본기 힐스는 매년 3000만 명이 다녀가는 도쿄의 랜드마크다. 오른쪽 고층 건물은 모리타워다. 사진제공=모리미술관

부동산 재벌 모리그룹, 17년 주민 설득 끝 ‘롯데기 힐스 프로젝트’ 추진

모리타워 53층에 미술관, 밤 10시까지 개방·전망대 패키지 등 마케팅

주변 명소 연계한 ‘아트 트라이앵글’ 인기...요코하마까지 관광객 북적

일본 도쿄의 변화가 미나토구 롯본기(六本木)에 자리한 모리미술관. 지난 2003년 문을 연 모리미술관은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술관’, ‘공중(空中) 미술관’이라는 근사한 별명을 지녔다. 그도 그럴것이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 보는 초고층빌딩(모리타워) 54층의 53층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접근성이 좋은 도로변에 위치한 뉴욕 현대미술관, 파리의 오르세미술관과 달리 미술관 입지로는 그리 썩 좋은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색다른 입지와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파격적인 발상으로 개관 10여 년 만에 도쿄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다.

그렇다면 모리미술관은 왜 지상에서 250m의 높은 상공에 동지를 틀게 됐을까? 그것도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도쿄 심장부의 오피스 빌딩에 말이다. 여기에는 쇠락한 구 도심을 문화로 되살려내는 ‘롯데기 힐스 프로젝트’가 있었다. 부동산 재벌로 잘 알려진 모리그룹은 1980년 대 말 ‘문화도시의 허브’를 구현할 구심체로 문화·주상·업무·쇼핑의 롯본기 힐스를 추켜들었다. 하지만 모리그룹의 ‘거사(巨事)’는 타이밍을 얻지 못해 책상 서랍속에서 잠들고 있었다. 일본의 ‘도시계획 특별법’(2002년 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여서 롯본기 재개발에 필요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데 무려 17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에도시대 무사들이 살았던 롯본기힐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토지구획정리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도심화가 진행됐던 곳이다. 말하자면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전형적인 도쿄의 변화가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미처 도시정비 관련 법규가 제정되기도 전에 주택단지는 물론 목조건물과 소규모 점포가 자리를 잡았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해 형성되지 않았던 만큼 도로 정비와 대중교통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1986년 재개발 유도지구로 지정될 당시에는 소방차조차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미로형 도로에 가까웠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1987년 낙후된 도시를 재생시키는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당장 수 십년 전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모리측은 400여 명에 이르는 토지소유



후미오 나조 모리미술관장

자를 한 명씩 찾아가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택했다. 밀어붙이기식의 재개발이 아닌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로 도심공동체를 이끌어내려 한 것이다. 주민 동의를 받아 내기 위한 설 명회만 무려 100회 이상 열었다. 땅을 팔라고 강요하거나 수용권을 발동하여 강제철거 하지도 않았다. 모리측은 주변의 다른 지역 보다 5배 이상 높은 오피스 지분을 보장하거나 저층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는 등 재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주민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모는 우리나라의 일부 재개발 추진과정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17년의 산고 끝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롯본기 힐스는 1만5500㎡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 랜드마크인 모리타워(지하 6층, 지상 54층·총238m)를 비롯해 크고 작은 8개의 건물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다. 다른 최첨단 고층건물과 달리 건물들을 등성 등성 분산시키고 그 사이에 공원이나 광장, 도로를 끼어 넣어 마치 골목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특히 1층 광장의 모리타워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각가 루이스 부르조아의 거미 조형물 ‘마망’(5m)은 매년 3000만 명이 다녀가는 롯본기 힐스의 ‘아이콘’이 됐다. 모리타워 안으로 들어가면 동선을 따라 배치된 작은 미술품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모던한 디자인의 세계 각국 음식점과 상점들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롯본기 힐스가 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다른 점은 가장 비싼 ‘노른자 위’에 모리미술관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모리타워가 시민들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대중적인 문화 공간인 미술관에 눈을 돌렸다. 이를 위해 모리측은 영국출신

의 세계적인 큐레이터 데이비드 엘리엇과 일본의 후미오 나조를 모리타워 설계과정에서부터 참여시켰다. 이런 인연으로 데이비드 엘리엇은 미술관 초대관장을, 후미오 나조는 그 뒤를 이어 지난 2006년부터 모리미술관을 이끌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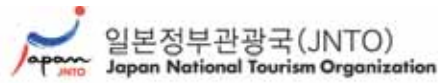
모리미술관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쿄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초고층 전망대와 입장권을 연계한 패키지 마케팅을 추진, 수백 만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을 겨냥해 매일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하이라이프 택시 운전자와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견학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관광객들을 최전선에서 만나는 택시운전사와 호텔종사자들에게 모리미술관을 알려 자연스럽게 도쿄관광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후미오 관장을 비롯한 역량있는 큐레이터들은 매년 국내외 작가들을 초청해 글로벌 미술관의 위상을 과시한다. 기획전의 규모와 스케일은 웅만한 비엔날레와 맞먹을 만큼 퀄리티가 높다. 국내에선 광주출신 강 운 작가를 비롯해 서도호, 최정화, 이불 등 최근 국제미술계의 스타작가로 떠오른 작가들이 모리 미술관에 초대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첫선을 보인 ‘아트 트라이앵글’(art triangle)은 문화로 도시를 되살려내는 롯본기 힐스의 결정판이다. 후미오 나조 관장의 제안으로 탄생된 아트 트라이앵글은 모리 미술관을 중심으로 도쿄 중심가에 위치한 국립신미술관, 산토리 미술관 등 3곳을 예술거점으로 삼아 도쿄를 예술특구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들 세 미술관은 도보로 10분 정도에 위치해 있지만 제대로 둘러 보려면 최소한 이들 정도 투자해야 할 만큼 콘텐츠와 컬렉션이 풍부하다. 한 곳의 미술관 티켓으로 나머지 2곳의 미술관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아트로 세이빙’(ARTo Saving)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후미오 나조 관장(2008 싱가포르 비엔날레 예술감독)은 “롯데기 힐스의 강점은 수익성이 가장 큰 모리타워의 53층에 공공재 성격이 강한 미술관을 ‘임집’시켜 시민과 소통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라며 “아트 트라이앵글과 인근의 국립 서양미술관, 하코네의 조각공원까지 다양한 미술인프라를 끌어들이는 원원전략은 아트도쿄’라는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현지 취재 섭외 및 협조



롯데기 힐스 광장에 자리한 루이스 부르조아의 ‘마망’.



롯데기 힐스의 모리타워 53층에 자리한 모리미술관 입구.

통나무가구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가구빌딩



홍스제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직수입 최저가 판매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